

소규모,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경기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
2025.2.10.

인천시 주거정비과
2025.2.13.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9개 시, 194 개소를 정비한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 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작년까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즉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시가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개소, 주거성능개선형 1개소, 생활복합공간형 1개소, 지역특화재생형 1개소가 포함되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